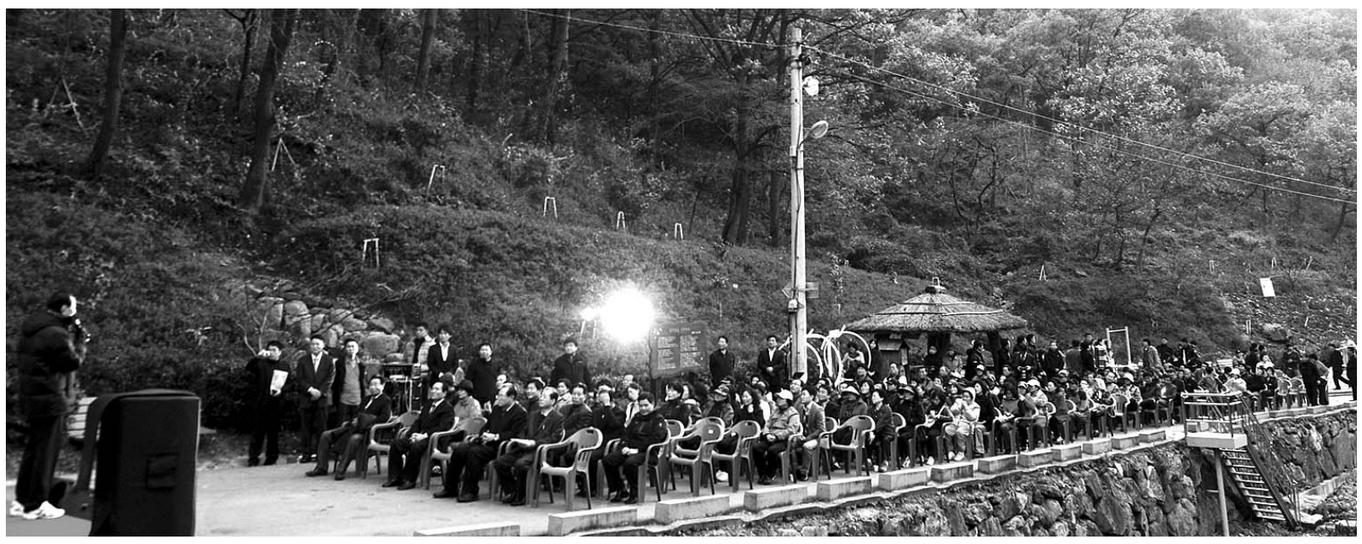

늦가을 '동적골 음악회' 11일 광주시 동구 운림동 동적골에서 열린 '작은 음악회'에 참석한 등산객과 지역주민 등 300명이 늦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동구청 주관으로 열린 이날 음악회는 초대가수 공연·플루트·색소폰·통기타 연주 등 다양한 행사로 진행됐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남대 '총장 직선제' 못 고치나

'혼탁 막기' 2년간 개정작업 끝내 중단 … 1년내 대안 마련 불가능

총장 입지자들 제도 개선 반대 입김 작용한 듯

전남대가 대학과 지역사회의 갈등 요인으로 지적돼 온 '총장 직선제' 개선을 위한 개정안까지 마련해놓고도, 개정작업을 중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총장 직선제' 개선 논의는 대학평의원회(12대) 주관으로 현 총장의 취임 직후인 지난 2008년 9월부터 시작돼 2년2개월여 간 진행, '총장후보선출규정 개정안'까지 마련한 상태지만 최근 새롭게 출범한 대학평의원회(13대)가 공청회 등을 거쳐 개정작업 중단을 선언하고 모든 논의를 원점으로 돌렸다.

대학평의원회는 구성원 대다수가 수용할 수 있는 규칙을 다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개정안을 다시 만들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차기 총장 선거를 위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규칙을 제정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차기 총장 선거는 오는 2012년 5월 전후로 예상, 최종 개선안은 늦어도 2011년 말까지 마련돼야 한다. 하지만 지난 2년여 동안에도 불가능했던 제도 개선이 1년 만에 이뤄지기도 어렵고, 이미 선거 출마에 뜻을 둔 후보와 그 세력들로 인해 총장 선출 방안 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전남대는 '총장 직선제'를 개선하기 위해 2008년 18대 총장 선거시 간접선거인단을 구성해 간접선거를 접목했으나 선거인단의 규모가 커 사전선거 및 혼탁선거가 이뤄져 직선제의 틀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전남대는 대학평의원회 주관으로 14차례의 회의와 2차례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총장후보선출규정 개정안을 도출했다. 개정안은 선거과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내외 인사 15명 정도로 구성된 '총장임용후보추천위원회'에서 총장 후보의 적격 여부를 심사, 최종후보를 2~3명으로 압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열린 '전남대 총장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총장임용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이나 대표성 확보가 어렵고, 오히려 사전 선거운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자 대학평의원회는 총장선출 규정개정 작업을 중단했다.

대학평의원회는 좀더 합리적인 개정안 도출을 다시 논의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다수 구성원들은 2년 넘게 고심해 마련한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면 가능한 문제를, 중단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총장 입지자나 그의 지지세력들은 수년 동안 물밑에서 선거운동을 벌여왔기 때문에 총장선거가 근접한 시기에 새로운 개선안을 도출하거나 개정안을 재추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전남대 한 교수는 "총장 선거가 점차 다가오는 만큼 대학평의원회가 어떤 개선안을 내놓더라도 첨예한 이해관계로 인해 객관성이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상당수 교수와 교직원들은 이번 대학평의원회의 결정 자체도 제도 개선을 반대하는 총장 입지자 등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

병원장이 아내 상습폭행 정신병원 강제 입원시켜

동부경찰, 40대 구속

평소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던 아내를 폭행하고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여성전문병원 원장이 구속됐다. 또 이 원장의 지시를 받고 병원에서 무면허 진료행위를 한 피부관리사 등 4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광주동부경찰은 11일 병원운영 적자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아내를 폭행하고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광주시 동구 M병원장 김모(45)씨를 감금 등 치상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 12일 정오께 자신의 병원에서 아내 A(39)씨를 폭행하고 국립나주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별거기간 중 A씨가 병원을 찾아오자 129에 "정신병자가 있다"고 신고, 응급환자 이송단까지 동원해 강제 입원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병원 차량에 A씨를 태운 뒤에도 욕설과 함께 폭행을 해 A씨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정신병원 담당의사의 진단을 받은 직후인 입원 5시간 만에야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 김씨의 지시를 받고 M병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피부관리사 김모(여·25)씨와 의료기 판매업자 주모(38)씨 등 4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 피부관리사 2명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요실금 수술 중 환자에게 마취제 주사를 놓는 등 면허없이 간호사 업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의료기 판매원 2명은 2008년 이 병원에서 자신의 의료기기를 팔기 위해 한 차례 점 빼는 시술을 한 혐의다.

경찰은 김씨 등 4명으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으며, 원장 김씨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아내를 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맞지만,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광주댐 인근 집단폐사 원앙 43마리

다른 곳서 농약볍씨 먹고 날아왔다

광주댐 인근에서 천연기념물 제327호인 원앙이 집단폐사〈광주일보 10월19일 6면〉한 것과 관련, 경찰은 타 지역에서 농약성분이 섞인 볍씨를 먹고 날아온 뒤 폐사한 것으로 추정했다.

11일 담양경찰은 죽은 원앙의 위 속에서 볍씨와 함께 발견된 '포스파미돈'이라는 농약은 섭취 후 일주일까지 생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 지역에서 볍씨를 먹은 원앙이 철새 도래지인 담양으로 날아와 폐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원앙이 폐사한 장소의 경우 왜가리 등 다른 철새들이 살아있고, 인근 주민들이 유해조수를 쫓기 위해 농약을 구입한 사실이 없는 점을 토대로 원앙의 이동 경로 등을 조사 중이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보조금 꿀꺽 공무원 구속

강진경찰은 11일 자신이 담당한 정부 지원사업 과정에서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강진군청 공무원 정모(45)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하고, 정씨의 상급자 한모(51)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집 나온 송아지 찾아준 경찰

쌍나팔

○…생후 3일 된 송아지를 찾아주고 주인이 내건 포상금도 정중히 거절한 경찰관에게 주민들이 칭찬.

○…11일 영광경찰에 따르면 송모(63·영광군 대마면)씨는 지난 9일 오후 자신 소유의 생후 3일 된 송아지가 우리를 나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이웃 주민들과 함께 밤새도록 마을을 뒤졌으나 송아지를 찾는 데 실패.

○…이에 송씨는 포상금 30만원을 거는 한편 대마파출소를 찾아 도움을 청했는데, 대마파출소 정진오 경위가 순찰 2시간 만에 송씨의 집에서 300여m 떨어진 농수로에 빠진 송아지를 발견하고 송씨에게 인계.

○…송씨는 "날씨도 춥고 젖먹는 소라 하루만 지나도 죽었을 것"이라면서 "고맙게도 송아지를 찾아주고도 포상금 마저 거절한 것을 보니 역시 경찰은 다른 것 같다"며 고마움을 표시.

/서부취재본부=조익상기자 ischo@

해군 고속정, 어선과 충돌 침몰 … 1명 사망·2명 실종

제주 서북쪽 해상서

해군 3함대 소속 고속정 1척이 어선과 충돌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으며, 6명은 부상을 입었다.

11일 해군에 따르면 야간 경비 임무를 수행하고 함대로 귀환하던 150t급 참수리정 295호가 지난 10일 밤 10시50분께 제주항 서북쪽 9.7㎞ 해상에서 270t급 우양호와 충돌해 승조원 30명 중 갑판병 노가빈(21) 일병이 숨지고, 목포 출신 병기 부사관 임태삼(25) 하사·홍창민(22) 이병 등 2명이 실종됐다.

당시 임 하사는 홍 이병과 함께 함정 선수 쪽 침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군은 생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임 하사는 대학 재학 중 휴학한 뒤 지난 2006년 부사관으로 군에 입대했다. 목포에는 아버지(65)·어머니(61)·형(33)이 살고 있다. 초등학교 친구 김준석(25)씨는 "어릴 적부터 친한 친구인데,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한 게 믿기지 않는다. 쾌활한 태삼이를 모두가 좋아했다"고 말했다.

현재 해군은 링스헬기와 고속정 등을 동원, 실종자 수색을 하고 있으며, 정장과 생존 승조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화순 춘양면서 말다툼 70대 60대 부부 흉기 찌르고 음독

11일 화순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30분께 화순군 춘양면 변천리 강모(64)씨의 집에서 강씨와 부인 문모(64)씨가 흉기에 찔려 쓰러져 있는 것을 아들이 발견, 병원으로 옮겼으나 중태다. 같은 날 오후 6시께 강씨의 집에서 500m 가량 떨어진 컨테이너 박스에서 김모(72)씨가 농약을 마시고 쓰러져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태다.

경찰은 "강씨 부부와 김씨가 말다툼을 했다"는 주민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씨가 강씨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자신도 음독한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중부취재본부=정운수기자 unsu@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SINCE 1982
※매우 잘 들립니다. ※안보입니다. ※가격이 맘에 듭니다.
국제보청기
www.kjhr.com
본 점(062)227-9940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81-1
충장점(062)227-9970
순천점(061)752-9940
목포점(061)262-9200
익산점(063)851-2422

www.hanbitgosi.co.kr
최다수강생
최다합격률
최고의시설
최강교수진
7·9급 행정직/ 세무직/ 법원직/ 검찰직
교행직/ 농업직/ 기술직/ 소방직/ 교정직
호남최대 7·9급 공무원시험전문학원 — 개강 12월 1일 주/야, 종합/단과
한빛고시학원
전남대 북구청 앞 (062)252-0252 직영학원 김영편입학원 227-8088